

사회

연구비 빼돌려 생활비 쓰고 인건비 부풀려 카드대금 갚고

“전남대·순천대 ‘불량교수’ 파면하라”

감사원 요구... 비위행위 공직자 82명 적발

감사원이 대학의 연구과제 성과와 관련한 교육을 민간기업에 해주고 받은 돈을 몰래 챙기거나, 연구과제 성과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전남대 교수를 적발해 파면을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연구원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횡령한 순천대 교수에게 파면을,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전남대 교수에 대해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공직자 겸직 및 부당 영리행위 실태’조사결과 비위행위를 한 공직자 82명을 적발하고 각 기관에 파면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대 경영학부 A교수는 지난 2003년 대학이 정부기

에 재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보조원의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연구보조원 8명을 연구원이라고 한 뒤 일부만 대학 산하협력단 소속에 등록해 부당하게 챙긴 인건비 2억7600여만원을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B교수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박사과정 재학생 등 제자들을 동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B교수는 대학에 임의로 연구소를 만든 뒤 민간기업과 연구용역비 등으로 받은 5300여만원을 연구과제와는 무관하게 사용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 추모

서귀포 문섬~마라도 수영 횡단

내달 12일 해협횡단팀

지난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해남 출신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씨를 추모하기 위한 수영 횡단행사가 다음 달 제주에서 열린다. 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해협횡단팀(cafe.daum.net/avavt)에 따르면 소속 대원 10명은 고(故) 조오련씨의 1주기를 맞아 9월 12일부터 이틀간 서귀포항 문섬에서 국토 최남단 마라도까지 해협저 건너는 도전에 나선다. 고인은 지난 1970년 방콕과 1974년 테헤란 아시아게임 자유형 400m와 1천500m에서 2회 연속 2관왕에 올랐던 수영 영웅. 자신이 대한해협을 횡단한 지 30

년이 되는 올해 다시 대한해협을 건너려고 훈련하다 지난해 8월 4일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해협횡단팀은 2006년부터 매년 송악산과 마라도, 고산과 마라도 사이 바다를 수영으로 횡단했다. 지난해 9월에는 조오련씨가 못다 한 꿈을 이루고자 중문포구~마라도 코스에 도전, 성공했다. 이들이 올해 도전하게 될 서귀포시 문섬~마라도 코스는 작년엔 완주했던 코스(27km)보다 훨씬 긴 43km 길이로, 수영하는 데만 12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들은 첫날 문섬을 출발, 6시간 동안 해협저 중간 기착지까지 간 뒤 숙소로 돌아왔다가 다음날 오전 다시 6시간 더 수영해 마라도에 도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항소심서도 유죄

지난해 정부정적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인천지역 전교조직원노동조합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4건의 전교조 시국선언 간부들에 대한 항소심은 모두 유죄로 결론났다. 인천지법 형사합소4부(윤종수 부장판사)는 6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임병구 지부장 등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 3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현행 교원 노조법 3조는 교원노조의 정치적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시국선언은 전교조에서 조직적으로 계획해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며 이 지부장 등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 지부장의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도 “법리와 여러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참가한 기자회견은 사실상 집시법에 사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임 지부장 등은 2009년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4일 열린 1심에서 임 지부장은 벌금 100만원, 나머지 2명은 각각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한마음의 아·태 청소년들이 '2010 제27회 아·태잼버리대회' 사흘째인 6일 순천시 낙안면 낙안읍성에서 42개국 1만2000명의 잼버리 참가자들이 골절 처치 등 응급처치법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9일까지 계속된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해남 11억 복지비 횡령’ 아내 돈 나눠쓴 남편 무죄

광주지법 선고

재판부는 아내의 범행이 드러날 무렵 김씨가 3천700만원짜리 오토바이 등 일부 재산을 팔아 숨긴 데 대해서도 “당시 아내의 범행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자녀 생활비라도 마련하려고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유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김씨는 2002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아내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도 아내로부터 112차례에 걸쳐 1억4천600만원 가량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아내 장모(39)씨는 2002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해남읍사무소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관리업무 담당하면서 허위로 급여비 지급을 요청, 11억여원을 가로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검사 스폰서’ 연루 11명 출국금지

광주지법 선고

‘검사 스폰서’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는 6일 항응집대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11명을 출국금지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방영된 PD수첩 2편에서 거론한 서울고검 수사관과 강릉지청 감도 계장 등이다. 김 계장 등 3명은 종전에 검찰이 강릉사건을 수사하면서 출국조치를 해 놓은 것을 다시 한 것이다. 특별검사는 스폰서 사실을 PD수첩에 제보한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의 항응집대 사건에 관련된 검사들의 출국도 검토하고 있다. 안병희 특별검사는 PD수첩이 폭로한 검사 스폰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5일 특별검출부 직후 부산으로 내려가 정씨를 면담하고 제보 내용을 다시 들었으나 서울로 데려오지는 못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주말 휴일 소나기 뒤에도 폭염

주말·휴일인 7일과 8일 광주·전남은 폭염이 계속된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구례·곡성 등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비의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5~40mm. 하지만 비가 내린 뒤에도 폭염은 지속되고 열대야도 여전한 것으로 전망된다. 7일과 8일 아침 최저기온은 24~26도, 낮 최고기온은 30~34도로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무더위가 지속될 것이다. 6일 광주를 비롯한 나주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장성군·화순군·광양시·순천시·무안군·함평군·영광군·신안군(흑산도·홍도 제외) 등 전남지역 12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며, 당분간 해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지난 한 주는 폭염주의보 발효가 지속되고, 열대야로 시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다”면서 “다음주에도 찜통더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

인사

◆광주시 ◇5급 진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김현민 ▲인권담당관실 김형준 남지역 12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며, 당분간 해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지난 한 주는 폭염주의보 발효가 지속되고, 열대야로 시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다”면서 “다음주에도 찜통더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

‘문자 내용 뒤길래’ 연인들 주먹질

○...휴대전화 문자 내역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손찌검까지 한 20대 캠퍼스 커플이 나란히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모(23·광주시 동구 서석동)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시 동구 서석동 0번영 앞에서 김모(여·25·광주시 북구 두암동)씨의 다리를 발로 차고, 이에 김씨가 이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 ○...김씨의 신고로 경찰서까지 온 이들은 2번째 사건 광주 모 대학 동아리 커플인데, 김씨는 경찰에서 “연인 사이에도 염연한 사생활이 있는데, 자주 휴대전화 문자를 보여달라며 때리자 순간 화가 났다”고 말했지만 결국 이씨와 합의하고 귀가.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Today's weather and forecast section. Includes a map of Korea showing weather conditions across different regions, a table of temperatures for various areas, and a 7-day forecast for Gwangju. Today's weather: Clear, 25/33°C. 7-day forecast: 8th (Clear, 25/32), 9th (Partly Cloudy, 25/32), 10th (Clear, 25/32), 11th (Clear, 25/32), 12th (Clear, 26/32), 13th (Clear, 26/32).